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영어 신문 · 중국어 신문 · 일본어 신문

시오데 히로유키(塩出 浩之, 교토대학)

【발표요지】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에 의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생성되었다. 발표자는 이를 동아시아의 공공권(公共圈)의 탄생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항지 사이의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했다. 개항지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영국은 각지에 영어 신문을 전파했는데, 이러한 영어 신문들이 상호간에 기사를 참조하거나 옮겨 실으면서 국경을 넘는 언론권을 형성했다.

영어 신문의 활동이 촉매제가 되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중국어 신문과 일본어 신문이 탄생했다. 이러한 신문들과 각지의 영어 신문 간에는 번역과 전재(轉載)를 통해 기사가 유통되었고, 중국 측도 영어 신문을 통해 일본어 신문의 논조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중국 고전에 대한 교양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중국어 신문이 그대로 읽혔다.

이러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은 1870 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자주 있었던 국제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메이지유신 후 일본이 대만이나 유구(沖繩),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보도나 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공통의 관심거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본 발표는 대만출병이나 유구처분을 구체적인 예로 이러한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에 대해 분석한다.

【약력】

1974 년생. 1997 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 2004 년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박사(학술). 현재 교토대학교 문학연구과 준교수. 연구분야는 일본근대사, 일본정치사. 주요 저서: 『오카쿠라 텐신과 오카와 슈메: 아시아를 생각한 지식인』(山川出版社, 2011 년), 『월경자의 정치사: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일본인 이민과 식민』(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년), 『공론과 교제의 동아시아 근대』(編著, 東京大学出版会, 2016 년)